

『임응식 스크랩북 발췌 자료집』 해제

김 소 회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연구원

‘임응식 스크랩북’은 1934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 사진사 관련 자료를 임응식(林應植, 1912~2001)이 특정 내용과 연도에 따라 모은 서른세 권의 바인더 북이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이들을 항목별로 분류해 개별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응식 스크랩북 및 녹화물 총 목록집』을 2014년 12월에 발간했다. 그러나 이 목록집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스크랩북 중에서 주요 자료를 엄선해 원문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집을 제작하였다.

스크랩북의 성격과 규모

스크랩북은 수집 형태에 따라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합지 바인더 열아홉 권으로 표제에 따라 ‘한국 사진사 자료’(12권), ‘임응식 기사’(6권) 그리고 ‘사진·미술 자료’(1권)로 나뉘며, 한국 사진사 관련 사료가 집중된 부분이다. 두 번째는 실 바인더 아홉 권으로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잡지기사만을 ‘현대 세계 사진 사상’, ‘사진과 회화’, ‘작가와 작품’ 등으로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철제 바인더 다섯 권으로 일본 잡지 스크랩(1권)과 선생의 필기 노트(4권)를 모은 것인데, 필기 노트는 사진기술이론, 사진작가론 그리고 한국 사진사 연표 등을 기술한 열일곱 권과 낱장 노트들이다. 유형별 분량은 기사, 홍보물, 문서, 원고 등의 순이며, 총 자료 수는 2,864점이다. 대부분 자료는 출처가 표기되어 있으며 날짜순으로 정리되었으나, 각 권의 표제 시기와 내용물의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자료의 선별 기준과 한계

‘임응식 스크랩북’은 다양한 유형의 문헌들이 섞여 있고, 내용에 따라 그 수가 과도하기도 하고 혹은 빈약하기도 하여 방대한 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선별이 필수적이었다. 우선 연구소는 자료의 중요도를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성을 지닌 사진 단체와 인물 그리고 당대와 후대에 영향력을 미친 전시를 중심으로 문헌을 선별했고, 이것을 연대별로 정리했다. 단체의 경우, 활동 시기가 한시적이며 지역적 혹은 지역적일 경우 선별에서 배제했다. 활동 범위가 특정 지역과 기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단기간에 끝난 소수 회원의 사진 단체, 대학 사진 동아리 등이 그 예다. 개인은 활동의 지속성과 직함 그리고 영향력을 고려했고, 공모전이나 단체전 그리고 개인전은 주최 기관, 전시 장소, 참여 작가, 규모 등을 참작해 선별했다. 이렇게 선별된 자료는 자료의 희귀성과 정확도에 따라 또다시 걸러졌다. 예를 들어 새롭게 발견된 도판, 목록, 서문 등은 우선하여 선택됐고, 이미 출판된 자료와 그와 내용이 유사한 것들은 정확성과 상황

인식을 제고할 경우 게재됐으며, 동어반복적이거나 전후 문맥을 알 수 없는 자료는 배제됐다.

‘임응식 스크랩북’은 임응식의 관점에서, 임응식을 위해 수집된 개인 자료다. 총 여섯 권에 이르는 ‘임응식 기사’는 선생의 전시, 출판, 수상 및 심사 자료를 포함해 선생이 집필한 사단 회고, 선생에 대한 비판에 응수하는 본인의 글 혹은 선생에 대한 호의적 에세이들이 대부분이며, 그 수가 1,145여 점에 이르러 합지 스크랩북의 과반을 차지했다. ‘한국 사진사 자료’ 역시 선생이 참여하고 관여했던 공모전, 단체전, 시상 등의 자료들이 대다수였다. 따라서 다른 주요 인물들과 선생과 무관한 단체들, 전시들에 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기만 하다. 이 ‘편파적인’ 수집물 안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을 공평하게 선별하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국 사진사를 다루는 시각이 선생 쪽으로 편중됐고, 선생과 무관한 혹은 적대적인 중요 사안들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국 사진사 편집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선생의 사적 개인사와 선생에 대한 회고적 평가에 관련된 자료는 가능한 한 게재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선생은 빈약한 한국 사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의 한 명이었고, 그를 위한 스크랩북은 그와 함께 길을 간 한국 사진사였기 때문이었다. 이번 자료집에 게재된 문헌의 상당수가 선생의 사진계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자료의 정리와 편집

선별작업 이후의 과제는 자료의 ‘객관적’ 시각화였다. 우선 자료의 물리적 요소, 즉 크기, 상태, 편집요소를 객관화하기 위해 디지털 복사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원본을 타이핑했다. 그리하여 ‘임응식 스크랩북’은 디지털 복사본과 타이핑 자료로 구분, 정리되었다. 연구소의 객관적 시각화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복사 자료는 물리적 크기뿐만 아니라, 원본의 부착 상태와 제본 형태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불가피했다. 타이핑 자료는 원문 그대로의 표기를 따랐고,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 주를 붙여 분명한 이해를 도모했다. 1960년대 이전의 자료의 경우, 연구소는 두 자료를 함께 신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반면 자료의 보존 상태와 인쇄가 양호한 1960년대 중·후반 이후의 자료는 디지털 복사본 자체로 원 텍스트 해독이 가능하여 디지털 복사본만을 실었다. 물론 복사본의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타이핑 자료를 부분적으로 첨가하기도 했다.

편집의 특징

이번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 수는 총 240여 점이며, 유형별로는 홍보물, 기사, 문서 순이다. 연대별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자료가 가장 많았다. 연구소는 무엇보다도 연대기적 편집을 중시했다. 게재된 주요 자료들을 연대별로 간략히 언급하면, 1930년대에는 임응식의 『사진살롱』 지 입선, 강릉사우회 전람회, 1940년대에는 부산예술사진구락부, 《전선향토사진전(全鮮 鄕土寫眞展)》과 임석제의 개인전 등이 수록되었다. 1950년대에는 《합동예술사진전》, 임응식의 《도쿄국제사진살롱》과 『US 사진연감』 입선, 《인간가족전》, 한국미술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단과 관련된 자료를 게재했다. 1960년대에는 《외국 당선 작품 걸작사진전》, 《한국 창작사진협회전》, 《동아국제사진살롱》, 《국전》 관련 자료와 한국사진협회 문서 등을 실었다. 1970년대에는 문선호, 전몽각, 최민식 등의 개인전과 국제사진전 등 다수의 전시 자료를 실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임응식 회고전》, 《한국 현대사진 흐름전》, 《'98 사진영상의 해》 그리고 사진박물관 건립에 관련된 자료들이 게재됐다. 아울러 연구소는 1950년대 잡지 표지, 작품 소개 기사 그리고 초상사진 등과 같은 임응식의 단편적 이미지 자료와 당대의 주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글들, 예를 들면 한국 사진사 회고, 작가론, 임응식의 사진론 등은 연대별 편집에서 분리했다.

이번 자료집에서 다루지 않은 문헌이 있다. 첫째는 임응식이 기술한 한국 사진사 연표, 재경(在京) 사진작가 발표업적 조사표, 사진이론 그리고 일본 잡지기사 등인데, 역사적 중요성이 시급해 보이지 않아 차후로 검토를 미뤘다. 두 번째는 《국전 사진부》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서한문 및 공문서 그리고 기사 등인데 다음 자료집의 사안으로 남겨 두었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이들 자료와 다른 《국전 사진부》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한국 사진계를 풍미했던 이 공모전을 총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가제 『《국전 사진부》 자료집』을 올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